

제1회 2012창원조각비엔날레 - 꿈꾸는 섬

서성록(2012' 총감독/ 안동대 교수)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의 돌섬 유원지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은 육지에서 1.5km 떨어진 섬으로 여객선을 타면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창원시민들의 쉼터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11년 11월에 가진 첫 모임에서 15인의 위원들의 투표로 위원장에 고(故) 김봉구 교수(이화여대)와 부위원장 김청정 교수(신라대)를 선임한 다음 규정 심의를 통해 "창원조각비엔날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규정에 명시한 대로 소위원회(김봉구, 박석원, 김청정)를 구성하고, 총감독을 선임하였으며, 총감독은 수석큐레이터로 이대형씨(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 Hzone 대표)를 영입하였다.

행사는 11개월간의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갖고 개최되었다.

추진 일정

- 2011. 11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위원회 개최
- 2011. 11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 총감독 선정과 소위원회 구성
- 2011. 12 : 관련 조례 개정, 2012. 1~2월 시의회 승인
- 2012. 1 ~ 3 :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설치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
- 2012. 3 : 주제 선정
- 2012. 1 ~ 4 : 초대 작가군 검토, 섭외, 스튜디오 방문
- 2012. 5 ~ 6 : 참여 작가 선정(작가선정, 드로잉 검토와 수정, 재검토)
- 2012. 7 ~ 9 : 작품제작
- 2012. 10.1 ~ 20 : 기반공사, 작품운반 및 작품 설치(같은 기간에 현장 작업 따로 진행)
- 2012. 10.26 ~ 11.25 : 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
- 2012. 10.27 : 학술 심포지엄 개최
- 2012.11-12 : 행사 평가

출품 작가들은 전시가 열리는 돌섬을 사전답사하고 이곳에 맞는 작품들을 준비해왔다. 돌섬(월영도)은 옛날 가락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나들이를 나왔으나 환궁치 않고 피해 있다가 금빛 도야지로 변하여 정착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돌섬은 사철 싱그러운 옥색 파도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는 해상 유원지로 필자는 풍부한 자연과 서사가 깃든 공간에 예술이 짝을 이루는 '꿈꾸는 섬'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꿈꾸는 섬'이란 주제에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자유를 꿈꾸며 내일을 기약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주제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상상력을 깨우고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환기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사실 예술의 그런 역할마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에른스트 비허르트(Ernst Wiechert)의 『잃어버린 별』(Der verlorene Stern)에 나오는 이야기 처럼 '동경의 별'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에게 꿈이 사라진다면 인생의 지향점이나 의욕도 느끼기 힘들게 된다.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의 돌레가 하늘의 크기라고 속단한다. 그들은 삶을 그저 달력의 빼곡한 숫자, 그리고 그것을 의미 없는 배열처럼 여기고 피상적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동경은 원래의 자리에서 크게 빛나가 있다. 주디스 윌리엄슨(Judith Williamson)의 말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외양(appearance)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고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한다. 우리는 광고 이미지를 보고 광고가 안내하는 아름다운 세계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윌리엄슨은 미디어에서 제시된 세계를 자기 자신의 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울 이미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꿈은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거울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 환상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어 아직 가보거나 느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긴다. 설사 직접 가보지는 못한다 해도 그리움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꿈은 가까이 있으면서 실현되지 않아 더 큰 갈망을 재촉한다. 그러므로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꿈을 돌아보는 것은 실낱같은 본원적인 갈망을 찾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행사의 주제 '꿈꾸는 섬'은 '동경'(Sehnsucht)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전시의 출품 작가는 국내작가 15명과 해외작가 5명이 참가하였다. 원래 계획은 30여명으로 예상했으나 이대형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 섬을 둘러본 결과 장소의 여건 상 20명 선이 적당하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참여작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구성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 본 전시와 해외 작가들이 마련한 특별전으로 나누었으나 참여 작가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본 전시와 특별전을 나눈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었다. 그리고 모든 출품 작가들의 소개와 작품 개요, 제작과정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드로잉전이 방치되었던 돌섬의 시설을 이용해 나누어 열렸다.

우선 본 전시는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하였는데 참여 작가로는 김병호, 김상균, 김영섭, 김주현, 김태수, 김황록, 노준, 서정국, 신치현, 안규철, 안병철, 정명교, 정현, 최태훈, 황영애 작가가 있으며, 이들 총 15명의 작품들이 각각 출품되었다. 출품작은 먼저 작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작품 드로잉을 제출하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자연적 형태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는 안병철과 황영애, 김주현과 김태수가 있고, 자연 자체 또는 자연이 주는 풍성함에 주목하는 작가로는 서정국, 정명교, 김황록, 김영섭 등이, 관객의 참여를 중시하는 작가로는 정현, 안규철, 김병호, 노준 등이 포함된다. 그런가 하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더듬어가는 작가로는 김상균, 최태훈, 신치현 등이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돌섬의 자연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돌섬의 설화에 걸맞은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전에서는 해외 작가 제임스 홉킨스(James Hopkins, 영국), 제임스 앵거스(James Angus, 호주), 미셸 드 브로인(Michel de Broin, 캐나다), 카즈야 모리타(Kazuya Morita, 일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 멕시코)가 초청되었다. 그 가운데 데이비드 브룩스는 지하에 실제의 트랙터를 설치해 문명의 발달과 그 뒷안길을 조명하는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사치 갤러리를 통해 주목 받는 영국의 조각가 제임스 홉킨스는 국제도시 창원을 상징하는 지구본을 제작하되 거울처럼 주위를 반사하는 것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왕성하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셸 드 브로인은 유원지의 성격에 맞게 5미터 규모의 거대한 계단 구조물을 통해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카즈야 모리타는 침성대처럼 벽돌을 쌓아 만든 돔형의 쉼터를 조성하여 돌섬을 찾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전시하였다.

행사 기간에는 본 행사의 주제를 토픽으로 국내외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대형 수석큐레이터의 진행으로 열린 학술세미나에는 서성록 총감독이 “꿈꾸는 조각”을 발제한 후, 국제미술평론가협회장을 역임한 영국의 헨리 휴스(Henry Meyrick Hughes)는 “조각공원, 유토피아, 창원조각비엔날레 그리고 역사적 선례들”을, 일본의 미술평론가 치바 시게오(Chiba Shigeo)의 “조각을 재조명하며 - 100년 전의 문제제기”, 김이순 홍익대 교수의 “관람자와 소통을 꿈꾸는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각각 발표하였다. 발제자들은 비엔날레를 둘러본 후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만들어가는 작품, I-Book과 홈페이지 등 참여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각 작품에 QR코드를 넣어 이해를 도모하고, 특별전시실에는 각 작품의 설명과 드로잉 등을 전시하였다. 정명교 작가가 만든 배 모형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망과 꿈을 적어 넣도록 했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큰 어려움은 작품재료나 조립단계만 남긴 작품을 섬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것을 위해 선박을 빌려야 했고 물때에 맞추어 절호의 순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날을 D 데이로 잡았으나 조수간만의 차와 쉴 새 없이 쇄도하는 파도로 인해 선박장과 운반선의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일은 말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필자처럼 물때에 대해 무지한 내륙의 사람에게는 왜 그 일이 까다로운지 몰랐었다. 어렵사리 선박에서 내려 몇 톤이나 되는 작품을 산기슭으로 옮길 때는 마음이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간당간당했다.

끝으로 행사를 빛내준 참여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스태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무탈하게 행사를 치러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작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초대된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노구를 이끌고 기꺼이 와준 헨리 휴스가 “한국의 창원에서 소규모이지만 알찬 비엔날레를 보게 되어 기쁘다”는 말에 지난 몇 개월의 피곤이 눈 녹듯 싹 가시는 듯했다. ●